



함께여는교회

- 함께여는교회 예배 시간
주일 오전 11시 30분
- 함께 가는 공동체
뉴스앤조이, 교회개혁실천연대,
성서한국, 하나누리, 희년함께,
개척자들, 촛불 교회, 스텔라데
이지 대책위원회
- 교회 주소
서울 중구 퇴계로36가길 97(B1층)
- 교회 전화번호
02) 743-4113
- 교회 홈페이지
www.opentogether.org
- 교회 은행계좌
국민은행 089501-04-184175

섬기는 분들

교인총회회장	홍사성
교인총회서기	채은동
교인총회감사	윤범한
운영위원장	노희창
예배팀장	표승범
사회선교팀장	이지연
생활가족팀장	안용희
재정팀장	방태홍
나눔대표	박상현
장로회	김대준 김동훈 송 건
교육전도사	정모세 김 덕

교회소식 & 이웃소식

1. 한반도의 평화, 경제정의, 그리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함께여는교회입니다.
2. 12월 31일 오후 5시에 송년예배를 드립니다. 이때 김대준 장로님 시무장으로 은퇴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예배 후 공동 식사가 있습니다. (표승범)
3. 1월 7일은 함께여는교회 창립기념 예배로 드리며, 신임집사 안수식(이병운, 임상원, 차정빈)도 갖습니다. (정모세)
4. 12월의 동영상은 '서울의 봄'(김성수 감독, 2023년)입니다. 12.12 군사반란을 배경을 한 영화로 현재 극장 상영중입니다. (정모세)
5. 2023년 고난 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성탄절 연합예배는, 기후위기로 고통 받는 못 생명들과의 연대로 드립니다. 모인 헌금은 기후변화를 막고자 애쓰는 최일선 현장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25일(월) 오후 3-4시, 국회의사당에서 진행됩니다(9호선, 국회의사당역 2번출구). (이지연)
6. 촛불교회는 겨울휴지기를 갖습니다. 2024년 3월 첫째 주에 다시 시작합니다. (이지연)
7. 함께여는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가족팀에게 말씀하시면 소정의 안내와 교육을 통해 함께여는교회 식구로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안용희)

함께여는교회

제15권 50호
2023년 12월 24일

함께 여는 이야기

이태원 가족들과 함께한 세월호 가족들의 열 번째 성탄 예배
: 생명 안전 공원 착공, 이태원참사특별법 제정 위해 기도..."가족들의 정의가 이 땅의 평화"

한국교회와 세월호 가족들이 생명 안전 공원 착공이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열 번째 성탄절을 맞았다. 세월호 가족들의 가장 큰 염원 중 하나는 전국에 흩어진 아이들의 유해를 안치하고 희생자들을 기억·추모하기 위한 생명 안전 공원 건립이었지만, 몇 년째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다. 참사 10주기인 2024년 4월까지 완공 계획이었던 생명 안전 공원은 기획재정부 예산 문제로 10주기에 맞춰 착공하는 것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세월호 가족들은 12월 21일 안산 4·16가족협의회 강당에서 성탄 예배를 열었다. 아기 예수가 마굿간 말구유에 누웠듯 아이들이 누일 생명 안전 공원이 하루빨리 건립되길 염원하고, 동시에 또 다른 참사로 고통받고 있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도 초청해 위로했다. 예배에 모인 세월호·이태원 유가족들과 그리스도인 140여 명은 생명 안전 공원이 하루속히 착공되고, 이태원참사특별법이 제정돼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이 이뤄지도록 기도했다. (생략)

박득훈 목사(성서한국 사회선교사)는 하나님은 힘없고 나약한 사람들의 편이 되어 주신다며, 이들의 정의가 이뤄질 때 진정한 평화가 시작된다고 설교했다. 박 목사는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은 힘없고 나약한 사람들, 어두운 시대에 억압당하고 슬퍼도 어디 하소연할 데 없고 사람들이 귀 기울여 주지 않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평화라고 말하신다. 군사력으로 힘없는 사람들을 눌러 침묵시키는 평화는 가짜 평화다. 누울 자리가 없어서 마굿간의 말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에게서 정의와 평화가 시작된 것처럼, 이들의 정의가 시작될 때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YMCA 강신하 이사는 "유가족들의 한 맺힌 절규는 풀리지 않고 있다. 물질만능주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인간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는 세상이 되기를 원한다. 혐오와 배제가 사라지고 사랑과 연대로 하나가 되는 세상이 속히 오게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했다. 참가자들은 세월호·이태원 가족들과 함께 진실과 정의의 길을 걸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뉴스앤조이] 12.22 나수진 기자.

함께 여는 예배

오전 11시 30분		사 회: 예배팀장
침 목 의 기 도	자녀들과 함께
신 앙 고 백	자녀들과 함께
찬 양 의 시 간	자녀들과 함께
공 동 기 도	홍 사 성
성 경 본 문 에베소서 2:6-8.....	사 회 자
말 씬 나 눔 “하나님의 선물, 공짜?”	방 인 성
환영/알리는말씀	담 당 자
송 영 과 축 도	다 함 께

예배위원

	12월 24일	12월 31일	1월 7일	1월 14일
예배인도	예배팀장	예배팀장	예배팀장	예배팀장
대표기도	홍사성	채은동	윤범한	노희창
말씀나눔	방인성	정모세	정모세	김대준
점심준비	성탄절 식사	송구영신 식사	이동임	유정옥
점심 설거지	박상현 박종욱	송 건 김석중	윤범한 이병운	차철균 임상원

함께여는교회 신앙고백

우리는 생명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며,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생명과 평화의 영인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함께여는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임을 믿으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세상에 보냄을 받은 공동체임을 믿으며,
 이웃과 민족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치유에 앞장서는
 하나님의 일꾼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며,
 섬김과 사랑의 도를 배우고 실천케 하는 능력이 됨을 믿으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적용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우리는 자연이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담긴 계시임을 믿으며,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본분임을 믿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여는교회 축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고이 보시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민 6:24~26)